

“금강산회담 10월2일 개최” 北에 수정 제의

당초 안보다 1주일 연기... 北 수용 불투명

이산상봉 시설 점검단 오늘 금강산 파견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오는 10월 2일 금강산에서 개최하자고 27일 북한에 수정제의를 했다.

이는 우리측이 당초 제안한 회담일(9월25일)보다 1주일 늦은 것으로, 사실상 다음달 열린 이산상봉 행사(9월25일~30일) 이후 금강산 회담을 갖자는 의미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다.

정부 당국자는 “실무점검과 이산상봉 행사 합의가 이뤄져 관련 조치가 진행 중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술적으로 일주일 정도 늦추는 것이 회담을 적절하고 실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 조기 재개를 희망하고 있는 북한은 당초 이달 22일 회담 개최를 희망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내달 25일을 회담일로 수정 제의하자 북한은 지난 22일 이산상봉 실무점검에 동의하면서 ‘8월 말~9월 초’ 금강산 회담 개최를 희망해 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남북 양측이 제안한 회담일의 중간 시점인 ‘9월 중순 개최’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부는 결국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끝난 뒤로 회담일을 잡았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정부가 분리 대응한다고 수차례 밝혔던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사실상 연계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는 “이들 두 사안은 분리 대응하는 것이며 연계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행사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1주일 정도 늦추는 것이 양측이 좋겠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조급하게 만나는 것보다는 복잡한, 발전적 해결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한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기존안보다 회담 개최를 늦춘 우리측의 수정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한편 정부는 내달 말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상봉 행사를 앞두고 28~29일 이틀간 이산가족 상봉시설 점검을 위한 점검단을 금

강산에 파견키로 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 정부의 요구에 이날 동의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및 현대아산을 비롯한 이산가족 면회소 운영에 관한 시설 협력업체 관계자 등 56명이 이산가족면회소 등 상봉행사 시설을 점검할 예정이다. 현대아산 직원을 제외한 우리측 인원의 금강산 방문은 2010년 11월 이후 3년만에 이뤄지게 됐다.

연합뉴스



27일 오후 서울 성산동에 위치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의실에서 최요식 회장(오른쪽부터 반시계방향)과 이종홍 부회장, 신양수 부회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 회장은 정부가 이날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당초 제안한 회담일(9월25일)보다 1주일 늦은 오는 10월2일로 수정 제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정치적인 논리로 차일피일 미루는 사이 금강산 기업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져 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문순태 칼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이용해 대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가 성과 없이 끝났다.

54일 동안 이를 지켜본 국민은 율화통이 터졌다. 그래서 2013년의 여름은 더욱 더웠고 짜증스러웠다.

정의, 불의, 진실, 허위, 은폐, 조작, 몰타기, 투쟁, 정치현오, 담당함, 비굴함, 뻔뻔스러운 같은 어휘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부스럭거렸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두운 밤하늘에 별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한 사람의 영웅을 만날 수 있어 큰 위로가 되었다.

권은희(39) 수사경찰서 수사과장. 광주 출신으로 조대여고와 전남대 법대를 졸업,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변호사 시절에 경찰간부로 특채, 최연소 경찰서 수사과장이 된 우리 시대의 잔디꾼.

8월16일 국정조사에서 권은희 과장은 김용관 전 경찰청장이 “격려전화를 했을 뿐이었다.”라면서 외압을 부인한 것에 대해 “격려전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을 이길 수 있다.”라고 격려했다.

또한,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권은희 경찰, 켜켜이 짓누르는 허위의 압력을 뚫고 진실을 용기있게 증언했다.”면서 “이런 분을 지켜내야 우리 민주주의가 소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여자, 권은희 씨는 겸손하다. “할 말을 했을 뿐” 이라면서 변호사를 그만두고 경찰이 된 이유에 대해 “경찰에서 희망을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이 경찰에서 희망을 보았다면 우리는 권 과장에게서 민주주의 희망을 찾았다.

이번 국정조사를 지켜보면서 2년 전에 읽었던 허버트대 교수 마이클 셸달이 쓴 ‘정의란 무엇인가’가 떠올랐다. 미국에서 고작 10만부가 팔린 이 책이 2010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되자, 1년 동안에 130만부가 팔려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다.

이 책이 엉뚱하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5%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마이클 셸달은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추구, 자유, 공동선(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즉 정의란 현재적 삶이며 도덕관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선의 도덕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의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한다. 정의를 살리는 것은, 한인섭 교수 말처럼 이 시대 촛불 같은 존재 권은희 과장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권 과장이 증언을 마친 소감에서 “감할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할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듯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권 과장에게 보복의 덫을 씌우게 될지 모를 일이다. 9월에 예정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든지 지켜볼 일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권은희 과장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소설가〉

‘권은희의 촛불’ 지켜야 한다

김용관 청장의 거짓말이다.”라고 분명히 증언했다.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탈북자, 비례대표)이 권 과장에게 “당신은 광주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이다.”라고 지역감정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자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나.”고 따졌다.

진실을 말하는 권 과장의 야무지고 당당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날 14명의 경찰들의 말과 1명의 말은 거짓과 진실이라는 두 갈래로 엇갈렸다. 14명의 경찰들 중에서 그 누구도 권 과장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새누리당의 비논리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질문공세에도 권 과장은 14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차분하고도 일관되게 소신에 찬 모습으로 증언했다. 비록 14대 1로 의로운 자리였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었기에 참으로 아름다웠다.

오목포북한 이북구비에, 날카로운 눈빛, 또렷 또렷한 목소리 등 모두가 아름답다. 그것은 거대한 권력조직을 향한 빛나는 진실이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당당하고 아름답다.

송파 경찰서 홈페이지에는 격려가 쏟아졌다. “국민의 마음속엔 권 과장이 경찰청장입니다.” 라는 글도 보였다.

전·현직 경찰모임인 ‘무궁화클럽’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개인은 조직을 이길 수 없으나 한 사람의 진실은 조직

트셀러가 된 함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 정의로운 국가라고 생각한다고 5%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사람은 정의로운 국가가 아니라고 응답했다. 참으로 슬프고 부끄러운 일이다. 마이클 셸달은 이 책에서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으로 행복추구, 자유, 공동선(미덕)을 이야기하고 있다. 정의란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즉 정의란 현재적 삶이며 도덕관이라는 것이다. 무엇이 정의인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은 공동선의 도

덕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말이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정의에 대해 깊이 자각하고 정의의 목소리를 낼 때가 아닌가 한다. 정의를 살리는 것은, 한인섭 교수 말처럼 이 시대 촛불 같은 존재 권은희 과장을 끝까지 지켜내는 일이다. 권 과장이 증언을 마친 소감에서 “감할 대상이 될 줄 알면서도 할 말을 했을 뿐이다.”라고 했듯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권 과장에게 보복의 덫을 씌우게 될지 모를 일이다. 9월에 예정된 승진에 불이익을 당하든지 지켜볼 일이다. 이 땅에 민주주의와 정의의 꽃을 피우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권은희 과장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소설가〉

광주시 감사관 공개 모집

내달 9~13일 접수

광주시가 감사관을 공개 모집한다.

응시 희망자는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광주시청 3층 총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시자격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발형직위인 감사관의 임용예정 직급은 경력직공무원 3급 또는 계약직공무원 3급으로 채용기간은 2년이다. 근무실적에 따라 5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모집 공고를 하고 응시원서를 접수받은 뒤 선발시험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10월중 임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062-613-2872) 또는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시청정보’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김정일 손자 한솔군 佛 파리정치대학 입학 예정

프랑스 주간지 보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자이자 김정남(42)의 아들인 한솔(18)군이 다음 달 프랑스 명문대인 파리정치대학(시앙스프)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주간지 렉스프레스가 26일(현지시간)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렉스프레스는 김한솔 군이 파리정치대학 르아브르 캠퍼스에서 공부할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파리에서 두 시간가량 떨어져 있는 이 대학은 재학생이 200명 가량되며 유럽과 아시아의 정치, 국제관계, 경제, 역사, 법 등과 관련된 학과들이 있다.

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학교에는 세계 32개국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수업은 대부분 영어로 진행된다. 한국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아시아 언어도 가르치고 있다.

프랑스 엘리트 교육기관인 그랑제콜 중 하나인 파리정치대학은 프랑수아 올랑드 현 대통령과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 등을 배출한 곳으로, 한국계 입양인 출신인 플로르 펠트랑 프랑스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도 이 학교 출신이다.

한솔 군은 앞서 지난 5월 보스니아의 국제 학교인 유니타드 월드 칼리지 모스타르 분교를 졸업한 후 자택이 있는 마카오에서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솔군은 지난해 10월 핀란드 TV와 인터뷰에서 형제 중 막내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어떻게 권력 후계자가 됐느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며 “이는 할아버지와 삼촌 간의 문제였고 두 사람 모두 (내가)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김정은)가 어떻게 독재자(dictator)가 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과 대화하고 싶다”

아베 日 총리 밝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뜻을 직접 밝혔다.

쿠웨이트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26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동행한 기자단에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과 관련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이같이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원한다는 것도 함께 언급했다.

일본은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의했으나 “실질적인 회담이 열릴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한국의 판단에 따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행복한 부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건물 2974㎡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건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예식장
 대지 1094㎡ 건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익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1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잔여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짜기 호남대학교 어등산 빌리지

부실속 친환경 명품주택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6-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부점포 105㎡ 매 8억6천(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항동 생산녹지 1,980㎡ 매 6억5천(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연수원,오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용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짜기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물건에 대하여 비밀보장하여 드립니다.

▶전남여고 건너편◀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

공장매매

장흥군 장평면 장평농공단지내

【 토 지 】
 4,864㎡
 【 공 장 】
 375㎡
 【 사무동 】
 161㎡
 기계장치 포함

【 용 도 】
 특수시멘트 (물탈 등)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장평농공단지 토지분양가 평당 239천원

017-602-1948